

Vol.03 | Apr 2020

**RICON** FOCUS



KOREA  
RESEARCH  
INSTITUTE FOR  
CONSTRUCTION  
POLICY

#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과 대응방안

**RICON**  
대한건설정책연구원

## 코로나19, 혼란과 충격

### 코로나19 대유행

- 코로나19는 발생 3개월 만에 전 세계를 '셧다운' 시키며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확대
  - 세계보건기구(WHO)는 신종플루 이후 11년 만에 코로나19에 팬데믹 선언(2020. 3. 11)
  - 중국, 한국 등의 초기 감염지역 발생자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,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
  - 미국 질병센터 등은 향후 2달간 감염이 최고조에 달한 뒤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
- 코로나19는 발병초기 사스, 메르스 등의 사례와 비교되었으나, 발병국가, 감염 및 사망자는 21세기 주요 전염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며 강력

〈21세기 주요 전염병 사례 비교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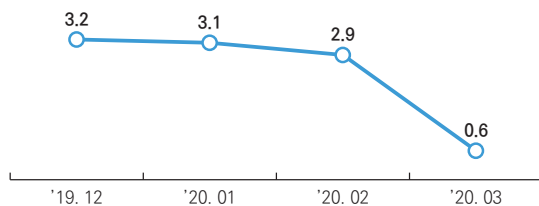
| 구분       | 사스             | 메르스           | 코로나19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발생시기     | 2002.11~2003.7 | 2015.3~2015.7 | 2019.12~           |
| 발병국가     | 32개국(동아시아 중심)  | 25개국(중동 중심)   | 전 세계               |
| 감염자(사망자) | 전세계            | 1,367(525)    | 2,023,423(133,444) |
|          | 한국             | 4(0)          | 10,613(229)        |

주: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자는 2020년 4월 16일 기준  
 자료: WHO, 질병관리본부 등

### 코로나19 영향과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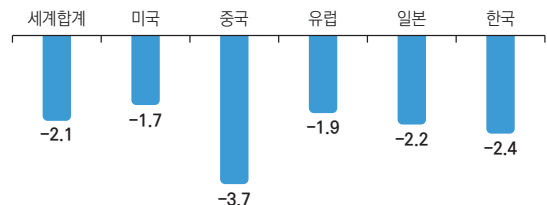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수요와 공급망이 동시에 붕괴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는 기정사실
  - 전 세계 181개국이 직·간접적으로 인적·물적 이동제한 조치 시행
  - IMF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
  - 주요 투자은행(IB) 역시 세계경제 역사상 '가장 단기간 내 가장 깊은 침체'를 보일 것으로 예상
-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파급영향이 커지면서 3월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
  - 이마저도 3분기부터 회복세를 전제로 하고 있어, 장기화시 부정적 영향은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
  -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슈퍼 부양책(재정+금융)을 제시하면서 경기둔화 최소화 노력

〈주요 IB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추이(평균)〉



자료: 국제금융센터 재인용, 2020. 3. 26

〈세계 경제성장률 감소폭 분석(World Bank)〉



자료: WORLD BANK, ECONOMIC UPDATE, 2020. 3. 30

- 우리 정부 역시 코로나19 사태 피해 극복을 위해 약 140조원 이상을 투입하며, 추가 조치도 고려

〈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〉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지원사항과 예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민생/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<br>(약 100조원) | 소상공인,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자금 공급 ⇒ 58.3조원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채권시장 안정펀드 가동 등 회사채·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⇒ 31.3조원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등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⇒ 10.7조원           |
| 민생경제종합대책<br>(약 32조원)          | 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, 매출채권 인수확대, 취약산업지원 등 ⇒ 4조원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비쿠폰 지원, 임대료 세액공제, 소상공인 대출, 금융기관 자금공급 등 ⇒ 16조원 |
| 추가경정예산 등<br>(11.7조원)          | 방역체계 고도화, 민생 및 고용안정, 지역경제 및 상권살리기 등 ⇒ 11.7조원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구·경북지역 특별지원 ⇒ 1.7조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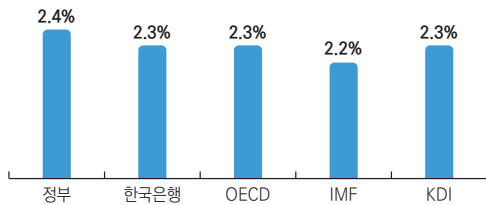
자료: 기획재정부 등

## 코로나19, 한국경제와 건설투자 파급영향

### 경제성장을 하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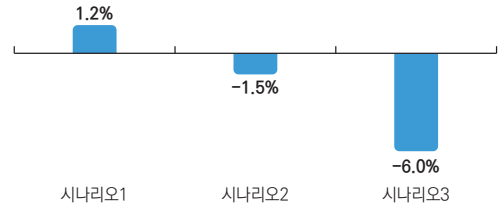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역시 2% 초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
  - 2월 이후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연 1%대로 하향조정
  - 최근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S&P는 올해 우리나라 GDP가 -0.6%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
-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세계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되느냐에 따라 변동성 확대
  - 시나리오1(코로나19 2분기 종식): 성장세는 위축되나,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1%대 성장세는 지속
  - 시나리오2(코로나19 3분기 종식): 소비, 투자, 수출 등 모든 부문의 악화로 -1.5% 역성장 예상
  - 시나리오3(코로나19 연간 지속): 외환위기 수준의 최악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(최소 -6.0% 역성장 예상)
  - 코로나19 사태의 전개양상이 불확실하나, 2분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

〈기존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〉



자료: 각 기관 전망자료

〈코로나19에 따른 경제성장률 시나리오별 전망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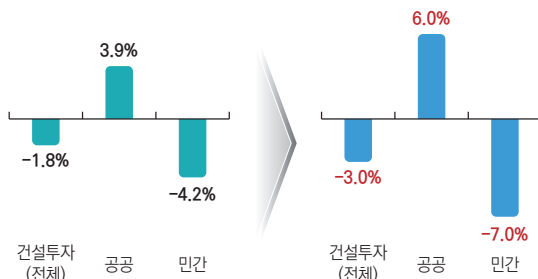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내부 전망(소비, 투자 변동에 따른 성장률 추정)

### 건설투자 및 해외수주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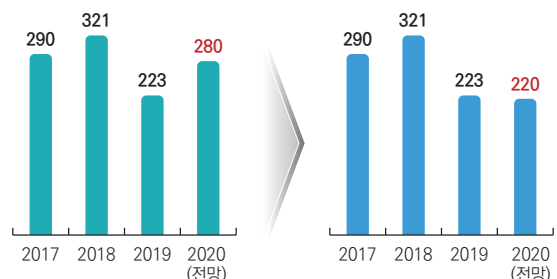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가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건설투자에 부정적
  - 외환위기, 금융위기 등 경기 변동성이 큰 시기에 건설투자의 감소폭이 확대되는 경향
- 건설투자는 기존 연구원 내부전망치에 비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 (-1.8% → -3.0%)
  - 경기침체 최소화를 위해 공공 건설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, 민간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
  - 코로나19 사태가 하반기에도 종식되지 않을 경우 건설투자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 상존
  - 주요 건설경기 지표 역시 부정적으로 전환, 2월 기성은 3.4% 줄어들었으며, 취업자수 역시 1만명 감소
  - 코로나19 사태의 부정적 파급영향은 시차에 따라 2/4분기 이후 집중될 것으로 보여 건설기업 어려움 가중
-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파급영향은 해외건설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 (280억불 → 220억불)
  - 중동, 아시아 지역 등에서 해외건설 수주 지연 및 취소 발생 우려
  - 특히, 주력시장인 중동의 경우 유가 급락으로 인해 발주상황이 더욱 부정적
  - 올해 해외수주는 2월까지 100억불에 육박하는 등 개선세를 보였으나, 하반기 이후 위축 불가피

〈2020년 국내 건설투자 수정 전망〉



자료: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내부 전망자료

〈2020년 해외 건설수주 수정 전망〉



자료: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내부 전망자료

## 코로나19, 건설산업 위험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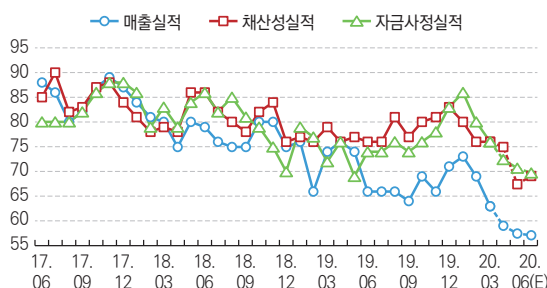
### 건설현장 공기 지연 및 원가 상승

- 국내 일부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환자가 발생하여 공사 중단 사태 발생
  - '20년 3월 11일 7개 건설현장 총 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, 30여 곳의 건설현장이 공사 중단
  - 공사 중단 시 현장관리와 보전을 위한 비용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 등 유·무형 피해 발생
- 노동, 자재 및 건설장비 수급에 영향을 끼쳐 국내 건설현장 공사지연과 원가상승 초래
  - 한국인 입국금지·철차강화 국가·지역은 181곳('20. 3.31)이며, 자국민의 한국 입국도 제한
  - 각국의 입·출국 제한으로 외국인 근로자 대체인력 확보 못해, 골조공사 등에서 인력 부족 현상 발생
  - 수입의존도가 높은 합판, 타일, 양변기, 석재 등의 건설자재도 물품교역의 위축으로 공급 차질
- 코로나19 종식 이후 동시 다발적 공사 실시는 생산요소 수요의 일시 급증으로 공사원가 상승 우려
  - SOC 조기집행과 추경에 의한 신규공사 발주로 인해 생산요소 공급 대비 수요의 단기 증가로 원가 상승
  - 특히, 공기연장이 힘든 민간공사는 돌관공사를 통한 공기만회로 인해 생산요소의 집중사용 심화 예상
- 해외 건설현장 역시 국가간 이동 제한 사태로 공기지연, 자재수급 곤란 등 원가상승 요인이 큰 상황
  - 국내 기술·관리인력 배치 및 교체가 어렵고, 국내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공급도 차질
  - 중국산 철근 등 자재의 조달 지연과 마스크, 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부족으로 인해 공사수행 곤란
- 국내·외 건설현장 모두 공기지연 및 공사원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와 발주자와의 치열한 분쟁 예상
  - 국내 공공계약 법령상 불가항력인 전염병의 적용범위 불명확으로 인해 계약조정이 어려운 상태
  - FIDIC(Red Book, 1999)은 전염병을 불가항력으로 규정되지 않아 해외 발주자가 공기지연 불인정

### 건설기업 재무 리스크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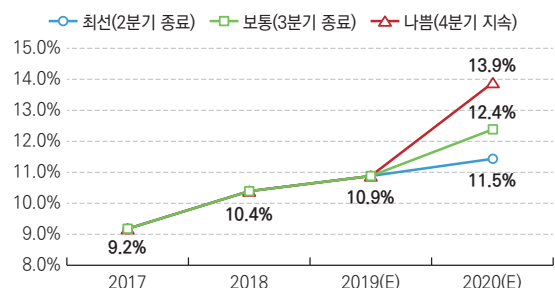
- 대기업은 해외발 리스크, 중소기업은 유동성 리스크 증가 예상
  - 상장 건설기업 부채비율은 149%('18년)로 높은 수준이며, 원가 상승 등에 따른 유동성 경색으로 재무악화 초래
  - 해외 건설현장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은 인력/자재 수급 지연으로 공사원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
  - 국내사업 중심의 중소기업 역시 건설경기 침체 및 공기 지연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
- 대기업의 부채비율 증가로 인한 한계기업 증가 전망
  - 해외 또는 대형공사를 진행하는 대기업들은 수익성 악화 및 단기 운영자금 조달 위해 부채증가 전망
  - 2분기 이후 민간부문 건설투자 감소가 예상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주물량 감소 예상
  - 2018년 10.4%에 달하던 한계기업은 팬데믹 진행상황에 따라 11~14% 수준까지 증가 예상
-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단기자금 부족 현상 우려
  -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높은 이자율과 낮은 대출한도로 충분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
  -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수요가 급격히 몰려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

〈최근 3년간 건설업 기업경기 동향 및 상반기전망〉



자료: 한국은행 기업경기 조사

〈건설업 한계기업 동향 및 시나리오별 전망〉



자료: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내부 전망자료

## 코로나19, 국내·외 건설산업 대응동향

### 정부의 건설산업 지원대책

-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 현장에 대해 지원 대책 발표
  -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및 조치사항, 공사중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이 주요 골자
  - 건설관련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특별용자와 보증수수료 인하를 통해 기업부담 완화 포함

〈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건설산업 지원대책〉






| 구분      | 주요 지원사항과 예산  |
|---------|--|
| 국토교통부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담체계 구축 및 대응계획 수립,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이행철저</li> <li>•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(건설현장 주체별 역할)</li> <li>•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로 작업이 곤란한 경우, 공사중지와 계약기간 및 금액 조정</li> <li>• 민간 건설현장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공정조정, 작업 중지 조치 시행 권고</li> <li>• 건설관련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특별용자(금리 1.5% 내외) 및 보증수수료 인하 등 시행</li> </ul> |
| 기획재정부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공발주기관이 계약을 집행·관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준수</li> <li>•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로 작업이 곤란한 경우, 공사중지, 계약기간 및 금액 조정</li> <li>• 공사 중지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도 공기지연 시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</li> <li>• 소액 수의계약의 한도 상향과 한시적 긴급 입찰 발주 의무화</li> </ul>   |
| 행정안전부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국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은 중소기업과의 계약기간 연장, 계약금액 상향 조정</li> <li>• 예방 등을 위한 신규계약체결의 경우 계약심사 제외 및 수의계약 체결 가능토록 조치</li> <li>• 일부 업종 및 산업 취득세, 지방소득세,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·납부 기한 연장 및 지방세 감면 적용</li> </ul>   |
| 중소벤처기업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제조업, 건설업 등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업체에 대해 경영안전자금 지원(2020년 2조 3000억 원 규모)</li> </ul>   |
| NH공사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도시재생뉴딜 등 대규모 공공투자 집행(상반기 조기 집행 및 사업비 추가 집행)</li> <li>• 중소기업·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(임대상가 임대료 25% 할인 및 임대조건 동결)</li> <li>• 공사중지 및 공사지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실시</li> </ul>  |

자료: 각 기관 발표 및 보도자료

### 해외 주요국의 대응동향

-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건설현장 중지를 비롯한 대응책 발표
  - 미국은 소규모 기업에 200만 달러 대출과 더불어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(코로나 뉴딜) 추진
  - 일본의 경우 건설업체가 예방적 차원에서 공사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공사비 및 공기연장을 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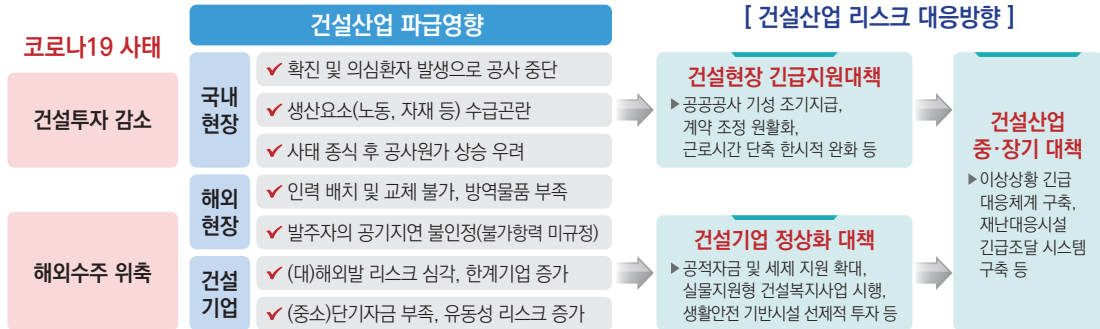
〈코로나19 관련 해외 건설산업 대응동향〉

|   |   |
|---|---|
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뉴욕 주를 비롯한 4개 주에서는 건설활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정지</li> <li>• 케임브리지 시와 보스턴 시는 모든 건설 현장 정지</li> <li>• 4월 2일 기준 미국 2,110개의 현장에서 지연 발생(건설협회)</li> <li>• 중소기업청(U.S.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)은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 기업 및 비영리단체에 최대 200만 달러의 저리 무전 자본 대출 제공</li> <li>• 트럼프 대통령은 '코로나 뉴딜' 차원에서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패키지 추진(4월 1일)</li> </ul> |
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정부 건설업 가이드라인 발표(엘리베이터 5명 이상 승차 금지)</li> <li>• 캐나다 건설협회(The Canadian Construction Association(CCA))는 캐나다 정부의 지원방법 명확화,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침 확보, 공공계약 지연에 대한 명확한 규정 수립 등을 요구</li> <li>• 소규모 고용주에게 최대 3개월의 임시 임금 보조금 지급</li> </ul>   |
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월 23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비 필수적인 활동과 비즈니스 중단 시행(건설현장 제외)</li> <li>• 3월 25일 빅토리아 주 마스터 빌더 협회 건설산업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 발표</li> <li>• 매출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은 최대 25,000AUD의 고용 보조금 수혜</li> </ul>  |
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월 23일 영국 정부의 lockdown 발표(건설현장 제외)</li> <li>•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설사를 포함한 모든 영국의 사업체에 VAT의 납부 연기</li> <li>• 내각부는 공공조달에 관한 Procurement Policy를 발표. 여기에는 공공발주자가 가능한 한 빨리 지불할 것, 계약금액의 25%까지 선지급 가능, 업체요구 시 계약내용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</li> </ul>   |
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월 27일 국토교통성 직할 건설현장의 수주자가 예방적 차원에서 일시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, 공사비 및 공기연장을 진행하는 지시 발표</li> <li>• 건설업진흥회기금이 실시하는 하도급 세이프티 넷 채무보증사업 및 지역건설업 경영강화용자제도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운영 자금 융통을 지원</li> </ul>   |

## 코로나19, 건설산업 대응과제

- 코로나19 사태는 국내 건설투자와 해외수주 감소, 자금조달 악화 등 기업경영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전망

〈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건설산업 파급영향과 대응방향〉



### 건설현장 긴급 지원대책

- **공공공사 기성금 조기 집행** →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(대가의 지급)의 예외 규정 적용
  - 코로나19로 인한 예정공정을 대비 기성률의 차이 발생으로 기성금의 지급 지연 발생
  - 시행령 제58조제3항 '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등을 참작' 등 예외 규정을 적용한 기성금 조기 집행
  - 추가로 건설사업자의 기성금 신청 시 현행 14일의 기성검사 기간 단축(일부 지자체 추진 중)
- **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 확대** → 소득 및 방역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
  -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가이드라인 마련
- **공기연장 및 계약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명확화** →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
  - 국가계약법 등은 불가항력 계약조정 사유에 전염병을 포함하나, 정의 및 세부조정 방안 등은 부재
  - 계약조정 사유에 전염병 종류가 아닌 재난 등급과 연동한 대응규정 마련 필요
- **근로시간 단축 한시적 완화** → 노동수급 개선과 더불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소득 보전 효과
  -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 수요 급증이 예상됨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한시적 유예 필요
- **자재 및 인력수급 행정지원** →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인력 및 기자재 수급 원활화를 위한 대책 지원
  - 중국, 유럽 등 수입 건설 기자재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(패스트트랙 적용) 및 행정규제 한시적 완화
  - 건설현장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외국인력 쿼터(E-9, H-2) 확대, 비자유형 전환 등 인력수급 지원

### 건설기업 정상화 대책

- **공적자금 지원 확대** → 건설기업 유동성 확보 및 금융지원 확대
  - 현재 건설관련 공제조합 특별용자(종합:5천, 전문 2천만원)는 한도가 낮아 건설기업 지원 효과 한계
  - 건설업 매출채권보험(건설업 지원 비율 0.1%) 활성화 및 보험료 지원 확대(현재 대구/경북한정)
  - 공공부문 및 일부 대형프로젝트에 집중된 브릿지론을 민간분야의 범위 및 규모 확대 추진
  - 공적금융기관 심사부담완화 및 건설업체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제조합을 공적자금창구로 활용 검토
- **세제 지원 확대** → 과세 유예 및 감면을 통해 기업 수익성 악화 완화
  - 종업원분 주민세(사업소세) 한시적 유예를 통해 건설인력의 구조조정을 방지하고 수익성 악화 완화
  - 금융거래(보증 및 대출), 유형자산(자재, 설비) 이전가격 과세의 유예 또는 감면 추진
- **실물지원형 건설복지사업 시행** → 자영업자의 업종 변경 및 인테리어를 위한 '건물복지 소비쿠폰' 발행
  -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건축물 수리 및 리모델링 쿠폰 지급
  - 건축물 안전보강(화재, 소방 등), 집수리(방수, 도장, 창호 등), 매장/사무실 소규모 인테리어공사 등 지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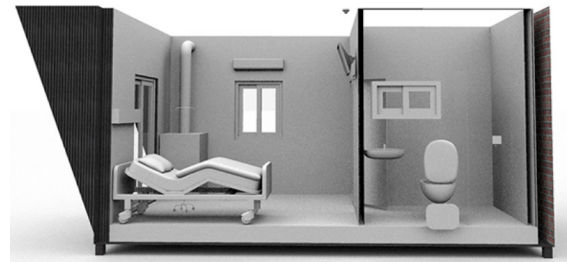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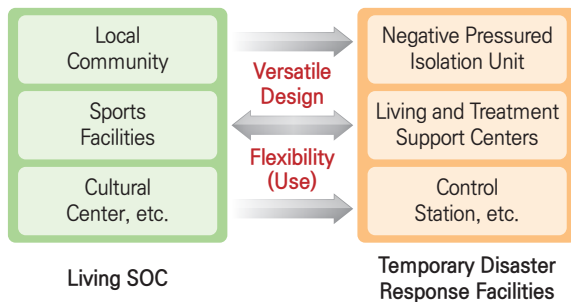
- **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** →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필요
  - 한시적 수의계약 활성화: 2억원 이하 공사의 수의계약 활성화로 소규모공사 조기발주 지원
  - 적격심사 공사 낙찰하한률 일시 상향: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하한률 10%p 상향
  - 중소형 공공공사 대상 예비비 제도 신설(現 총사업비관리지침은 300억 이상 토목공사 등 대형공사 대상)
  - 자율조정 한도액 상향(낙찰차액의 10%→50%)을 통한 예비비 규모 확대(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2조)
- **생활안전 기반시설 선제적 투자** → 노후 기반시설 및 안전 중심 SOC 투자로 건설경기 정상화 지원
  -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연평균 13조원 내외의 투자 실시(조기집행)
  - 기반시설의 전반적 관리수준(보통 이상)을 올릴 수 있도록 지역별 균형적인 재정투자·지원계획 추진
  - 코로나19 피해지역 중소건설기업 조기회생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 및 '21년 SOC 예산 확충

## 건설산업 중·장기 대책

- **이상상황 긴급 대응체계 구축** → 전염병, 기후변화, 재해/재난 등에 대한 건설현장 위기대응 체계 강화
  - 공공 건설현장 이상상황·시나리오·주체별(발주자·건설사 등)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·보급
  - 공공 현장 위기대응 훈련 적극 참여 주체(건설사 등)에 대한 인센티브(낙찰자 선정 시 가점 등) 제공
  - 민간 현장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·보급과 재난대응 우수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(재난관리기금 투입 등) 부여
- **재난대응시설 긴급조달 시스템 구축** → 생활SOC를 활용한 지역별/거점별 재난대응시설 구축
  - 기존 생활SOC 복합화 시설 및 지역 커뮤니티 시설 등의 재난상황 발생시 멀티활용 시스템 구축
  - 이동식 모듈러를 활용한 음압병실, 생활치료센터 등 재난안전시설 확충 예산 편성 및 시설 발주

〈생활SOC 시설의 재난상황 발생시 멀티 활용〉

〈이동식 모듈러 음압병실 등 재난대응시설 확충〉



Source: SY Group

- **공사수행 및 생산요소 공급체계 확립** → 건설 근로자 양성과 건설자재 Supply Chain 정비
  - 현장맞춤형 도제식 교육을 통한 직업훈련 현장성 강화 및 구직자(양성)·재직자(향상)로 이원화 운영
  -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건설기능인 교육·훈련 강화(훈련비·훈련장려금 인상: 現 주간 1일16,000원)
  - 특정 국가(중국 등) 수입에 집중된 자재(철근, 합판, 타일, 석재 등)에 대한 건설사 공급망 다변화
- **생산방식 및 기술개발 활성화** → 사회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대응 투자 확대
  - 건설현장 인력 최소화를 위한 IoT현장관리, 모듈러, Machine Control 등 스마트 기술개발 및 활용
  - 발주제도 개선(턴키), 건설기술 정비, 신기술 진입여건(창업지원 등) 마련을 통한 민간의 기술개발 유도
  - 국가 R&D사업 집중 투자, 공공기관 시범사업 등 공공 역할 강화를 통한 스마트 기술 활성화 기반 마련
  - 창업지원센터 설치, 스마트 건설 전문가 양성, 지식 플랫폼 구축·운영을 통한 스마트 생태계 구축
- **FIDIC 국제표준계약조건 개정 건의** →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불가항력에 포함되도록 노력
  - FIDIC(Red Book, 1999) 제19조는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불가항력의 구체적 예시로 미 규정
  - 전염병 확산으로 공사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(WHO Pandemic 선언 시)를 불가항력 예시로 규정
  - 해외 건설현장은 발주자에게 불가항력 발생 통지(14일 이내) 및 계약이행 지연 최소화 노력 실시

**RICON FOCUS** Vol.03 Apr 2020

발행일 2020.04.

발행인 유병권

발행위원 박선구, 홍성호, 유일한, 김태준, 조재용, 정대운

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

07071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, 13층(신대방동, 전문건설회관)

TEL : 02-3284-2600 FAX : 02-3284-2620 <http://www.ricon.re.kr>

등록 2007년 4월 26일(제319-2007-17호)

**RICON**  
대한건설정책연구원